제162호(2018. 3. 14.)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목 차
contents

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 ····· 1

2. 주요 품목별 수입 실태 ····· 7

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어명근 시니어 이코노미스트		
내 용 문 의	지성태 부연구위원	061-820-2304	dongsimjst@krei.re.kr
자 료 문 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61-820-2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KREI 농정포커스 제162호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18. 3.
발행인 | 김창길
발행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쇄처 |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ISBN | 979-11-6149-144-8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요 약
Summary

○ **한·미 FTA 이행 6년차('17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국내 수요 증가, 수입단가 상승, 수입 전환효과 등으로 전년 대비 13.1% 증가**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이행 5년차 대비 13.1% 증가한 81.3억 달러이며, 이는 이행 3년차('14년)에 못 미치는 수준

○ **이행 6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하면서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가 이어짐.**

-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팽이버섯, 신선 배, 김치, 라면 등의 수출 증가로 이행 5년차 대비 4.1% 증가한 7.5억 달러이며, 발효 이후 연평균 9.0% 증가

○ **이행 6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67.1%,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6.8%로 전년 대비 모두 하락**

-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이행 5년차 대비 4.2%p 하락했고,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1.9%p 하락

○ **이행 6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중 품목별 차이는 있지만 주요 품목 대부분의 수입은 회복되는 추세를 보임.**

-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모두 증가하여 전년 대비 17.6% 증가
-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체리, 포도를 제외한 오렌지,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량이 감소했으나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전년 대비 13.4% 증가
- 미국산 곡물(식용) 수입액은 대두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옥수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5.0% 증가

○ **이행 6년차 미국산 축산물과 과일의 수입가격은 환율 하락과 관세율 인하로 인해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과 과일(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의 수입가격 하락폭은 FTA 미발효 시 대비 각각 10.0~19.8%와 18.6~31.0%로 추정

○ **한·미 FTA 이행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고 경기 회복으로 농축산물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피해 가시화에 대비할 필요**

- 국내외 수급 불안정,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한·미 FTA 재협상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농축산물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수급 안정에 힘써야 함.
- 또한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농업부문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함.

01 한·미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1)]

이행 6년차('17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1% 증가했으나, 이행 3년차('14년)에 못 미치는 수준

1.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동향

□ 한·미 FTA 이행 6년차('17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81.3억 달러로 이행 3년차('14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이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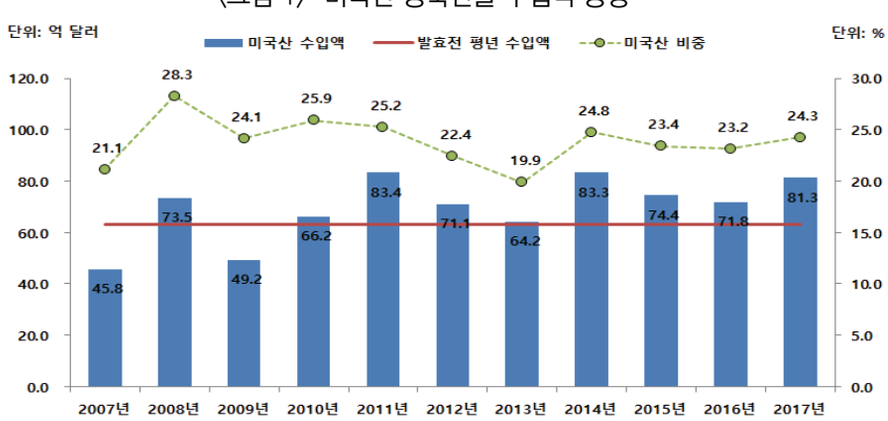
○ 이행 6년차 미국산 농축산물[2)] 수입액은 신선 과일과 축산물의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16년) 대비 13.1% 증가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억 달러): 62.9(발효 전 평년[3)]) → 71.1(이행 1년) → 64.2(이행 2년) → 83.3(이행 3년) → 74.4(이행 4년) → 71.8(이행 5년) → 81.3(이행 6년)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은 타 FTA 체결국으로의 수입선 전환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전년 대비 1.1%p 상승

-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비중(%): 25.1(발효 전 평년) → 22.4(이행 1년) → 19.9(이행 2년) → 24.8(이행 3년) → 23.4(이행 4년) → 23.2(이행 5년) → 24.3(이행 6년)

〈그림 1〉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동향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1) 한·미 FTA 교역동향의 분석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12월) 기준으로 3,068개 HSK코드 기준으로 교역자료를 집계함.
2) 본고에서 후술하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농축산물'을 의미함.
3) 한·미 FTA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수입액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 부류별로는 이행 6년차 곡물, 과일 · 채소, 가공식품과 축산물 수입액 모두 전년 대비 증가

○ 이행 6년차 미국산 곡물 수입액은 박류와 두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밀, 옥수수 등 곡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5.0%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밀(13.4%), 옥수수(2.5%), 쌀(23.5%), 호프(111.4%) 등이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양조박(△5.8%), 대두(△3.2%), 대두박(△60.5%), 설탕박(△54.2%), 호밀(△39.6%) 등임.

○ 이행 6년차 미국산 과일·채소 수입액은 화훼류, 채소류, 주스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선 과일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1.0%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신선 체리(32.0%), 가공 오렌지(110.8%), 아보카도(171.3%), 신선 포도(37.0%) 등이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스위트콘(△12.4%), 단일과실조제품(△15.9%), 가공 자몽(△45.9%), 채소종자(△31.2%), 신선 오렌지(△0.4%) 등임.

○ 이행 6년차 미국산 가공식품 수입액은 과자류, 당류, 유지가공품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식물성섬유, 식물성유지, 사료, 주류 등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9.8%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면(70.0%), 대두유(153.6%), 사료용 근채류(34.8%), 에틸알코올(47.5%), 혼합조제식료품(3.4%) 등이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배합사료(△22.4%), 당밀(△86.6%), 기타 유지가공품(△8.6%), 캔디(△12.3%) 등임.

○ 이행 6년차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은 원피류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포유가축 육류와 유제품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7.6% 증가

- 주요 수입 증가 품목은 쇠고기(21.3%), 돼지고기(15.7%), 치즈(24.0%), 조란(870.8%), 양장(28.2%) 등이며, 주요 수입 감소 품목은 소원피(△3.4%), 펩톤(△4.2%), 유당(4.4%), 조제분유(△27.8%), 연유(99.7%) 등임.

〈표 1〉 미국산 농축산물 부류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발효 전 대비 (G/A)	1년차 대비 (G/B)	2년차 대비 (G/C)	3년차 대비 (G/D)	4년차 대비 (G/E)	5년차 대비 (G/F)
전체 합계	6,295	7,113	6,419	8,335	7,445	7,182	8,126	29.1	14.2	26.6	-2.5	9.1	13.1
농산물	4,344	4,422	3,642	5,090	4,418	4,357	4,887	12.5	10.5	34.2	-4.0	10.6	12.2
- 곡물	2,787	2,375	1,442	2,760	1,947	1,878	1,973	-29.2	-16.9	36.8	-28.5	1.4	5.0
- 과일·채소	328	593	616	610	625	628	698	112.5	17.6	13.4	14.4	11.7	11.0
- 가공식품	1,036	1,453	1,584	1,721	1,847	1,850	2,216	113.8	52.5	39.9	28.8	20.0	19.8
축산물	1,153	1,898	1,925	2,326	2,149	2,108	2,478	115.0	30.5	28.7	6.6	15.3	17.6
임산물	795	793	852	918	878	717	761	-4.3	-4.0	-10.8	-17.2	-13.3	6.0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임.
2) 발효 전 평년 수입액은 2007~2011년 수입액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

□ 이행 6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7.5억 달러로 한·미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87.2% 증가하였고, 발효 이후 연평균 9.0%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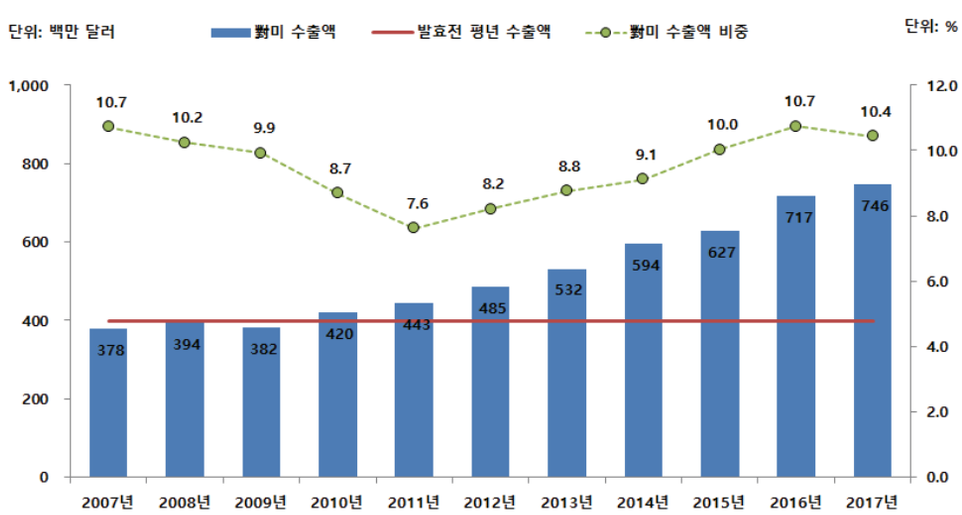
○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한 · 미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행 6년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 증가

-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억 달러): 4.0(발효 전 평년) → 4.8(이행 1년) → 5.3(이행 2년) → 5.9(이행 3년) → 6.3(이행 4년) → 7.2(이행 5년) → 7.5(이행 6년)

○ 우리나라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에서 對미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FTA 발효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행 6년차에 전년 대비 소폭(△0.3%p) 하락

-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 비중(%): 9.5(발효 전 평년) → 8.2(이행 1년) → 8.8(이행 2년) → 9.1(이행 3년) → 10.0(이행 4년) → 10.7(이행 5년) → 10.4(이행 6년)

〈그림 2〉 對미 농축산물 수출 동향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부류별로는 이행 6년차 對미 과일·채소, 가공식품, 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한 반면, 곡물은 감소

○ 이행 6년차 對미 곡물 수출액은 곡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타 곡실류, 서류 등의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2.3% 감소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쌀(18.7%), 기타 곡물(23.9%), 고구마 전분(109.2%), 기타 콩(92.5%) 등이며,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팥(△11.3%), 감자전분(△79.4%), 기타 전분(△18.5%), 땅콩(△78.9%) 등임.

○ 이행 6년차 對미 과일·채소 수출액은 신선 배, 매실 등의 신선 과일류, 가공 유자, 팽이버섯, 김치, 채소종자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7.8%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팽이버섯(22.6%), 신선 배(4.7%), 가공 유자(50.0%), 김치(16.0%), 채소종자(9.1%), 무(64.6%) 등이며,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단일과실 조제품(△20.5%), 기타 채소(△7.7%), 채소 혼합물(△83.6%) 등임.

○ 이행 6년차 對미 가공식품 수출액은 연초류, 음료류, 식물성 액즙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면류, 인삼류, 과자류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소폭(0.3%)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라면(15.5%), 기타 베이커리제품(14.6%), 기타 조제식료품(18.6%), 인삼음료(95.2%), 홍삼조제품(46.3%) 등이며,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궐련(△8.7%), 기타 식물성액즙(△67.0%), 기타 음료(△3.2%), 기타 당(△39.3%) 등임.

○ 이행 6년차 對미 축산물 수출액은 낙농품, 포유가축육류 등의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백질류, 가금육류, 포유 가축류 등의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5.0% 증가

- 주요 수출 증가 품목은 젤라틴(5.0%), 닭고기(24.7%), 펩톤(6.4%) 등이며, 주요 수출 감소 품목은 연유(△20.2%), 가죽(△37.1%), 치즈(△70.0%), 발효유(△3.4%) 등임.

〈표 2〉 對미 농축산물 부류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발효 전 대비 (G/A)	1년차 대비 (G/B)	2년차 대비 (G/C)	3년차 대비 (G/D)	4년차 대비 (G/E)	5년차 대비 (G/F)
전체 합계	399	485	532	594	627	718	746	87.2	54.1	40.4	25.6	19.0	4.1
농산물	360	441	473	530	558	634	641	78.1	45.3	35.4	20.9	14.8	1.2
- 곡물	8	9	10	9	9	10	9	14.4	4.3	-3.8	4.1	3.7	-2.3
- 과일·채소	58	67	74	74	74	82	87	51.0	29.5	17.8	17.3	18.1	7.8
- 가공식품	294	365	390	447	475	543	544	85.5	49.2	39.7	21.8	14.6	0.3
축산물	22	27	35	36	35	35	37	71.9	37.9	6.2	3.0	6.0	5.0
임산물	16	16	23	28	34	48	68	320.3	316.8	191.6	145.1	100.3	42.1

주 1) 곡물은 곡류, 기타 곡식류, 두류, 서류, 전분, 박류, 채유종실의 소계, 과일·채소는 과일, 채소, 화훼, 버섯류(농산물), 기타 산식물의 소계, 가공식품은 농산물 소계에서 곡물과 과일·채소를 제외한 값임.
2) 발효 전 평년 수출액은 2007~2011년의 수출액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미국산 농축산물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은 67.1%,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은 46.8%로 전년 대비 모두 하락

□ 이행 6년차 미국산 농축산물의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4]은 67.1%로 전년 대비 4.2%p 하락

○ 이행 6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 가운데 'FTA 대상 품목[5]'의 수입액은 75.0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입액은 50.3억 달러임.

-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72.6('13) → 63.3('14) → 71.6('15) → 71.3('16) → 67.1('17)
- 이행 6년차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품목 가운데 쇠고기 수입액(12.6억 달러)이 가장 높으며, FTA 특혜관세 활용률도 99.9%로 매우 높은 수준
- 수입 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이 90% 이상인 품목은 쇠고기(99.9%), 돼지고기(99.8%), 오렌지(90.4%), 치즈(99.4%), 아몬드(99.8%), 체리(99.9%), 감자(97.6%), 호두(99.9%) 등임.

□ 이행 6년차 對미 수출 농축산물의 FTA 특혜관세 활용률[6]은 46.8%로 전년 대비 1.9%p 하락

○ 이행 6년차 對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7.5억 달러이며, 그중 FTA 특혜관세를 활용한 수출액은 3.5억 달러임.

-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46.7('13) → 46.2('14) → 47.8('15) → 48.7('16)→ 46.8('17)
- 수출규모가 1백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50% 이상인 품목은 팽이버섯(97.8%), 소주(96.6%), 라면(96.2%), 홍삼정(89.3%), 느타리버섯(79.4%), 간장(65.8%), 김치(63.7%), 신선 배(58.5%)[7], 국수(55.0%), 고추장(51.2%) 등임.
- 특히, 라면(10.9%p), 김치(44.5%p), 홍삼조제품(21.6%p), 기타 채소(2.6%p), 맥주(15.1%p), 식혜(36.1%p) 등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상승폭이 크게 나타남.

---

4) FTA 수입특혜관세활용률은 'FTA 대상 품목 중' 원산지 증명을 발급받은 품목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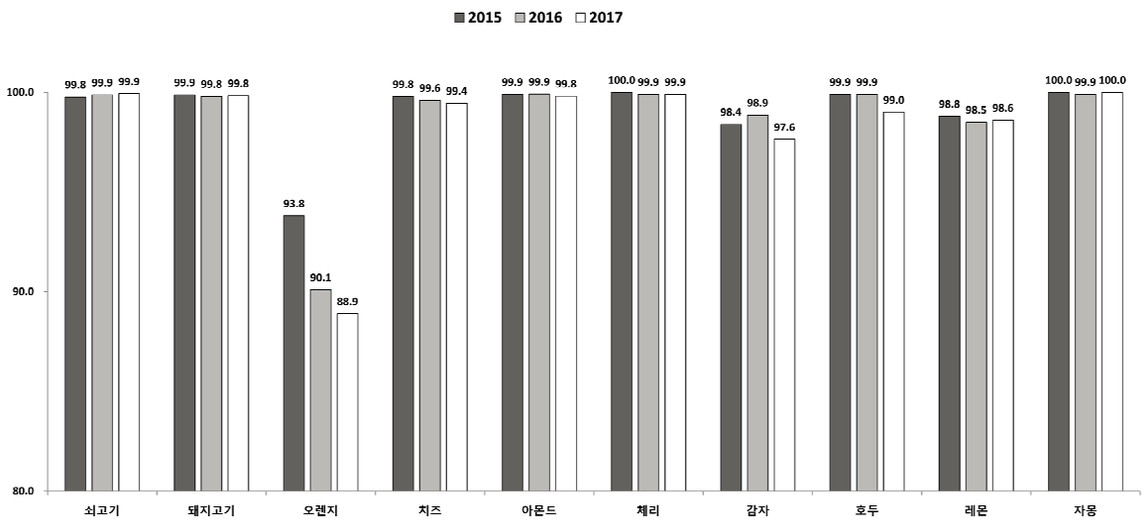
5) FTA 협상결과에 따른 관세 인하(철폐)로 실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품목임.

6) 미국과의 농축산물 교역에서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① 사후 검증에 대한 부담, ② 수출 품목의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달라 원산지증명서나 증빙서류를 받기 어렵고, ③ 국내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임. 또한, ④ 對미 수출 농축산물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공식품의 역외 원료 비중이 높아 원산지 증명이 어려움.

7) 신선 배가 국내 완전 생산임에도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원산지 확인서 발급을 위한 서류가 간소화되었으나(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GAP),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지리적표시등록증 등으로 대체 가능) 첨부 서류 구비가 여전히 어렵거나, 원산지증명을 발급 받았음에도 수출신고필증에 신고가 누락되었거나, 수입업체의 발급 요청이 없어 발급 받지 않았기 때문임.

〈그림 3〉 2017년 주요 품목별 한 · 미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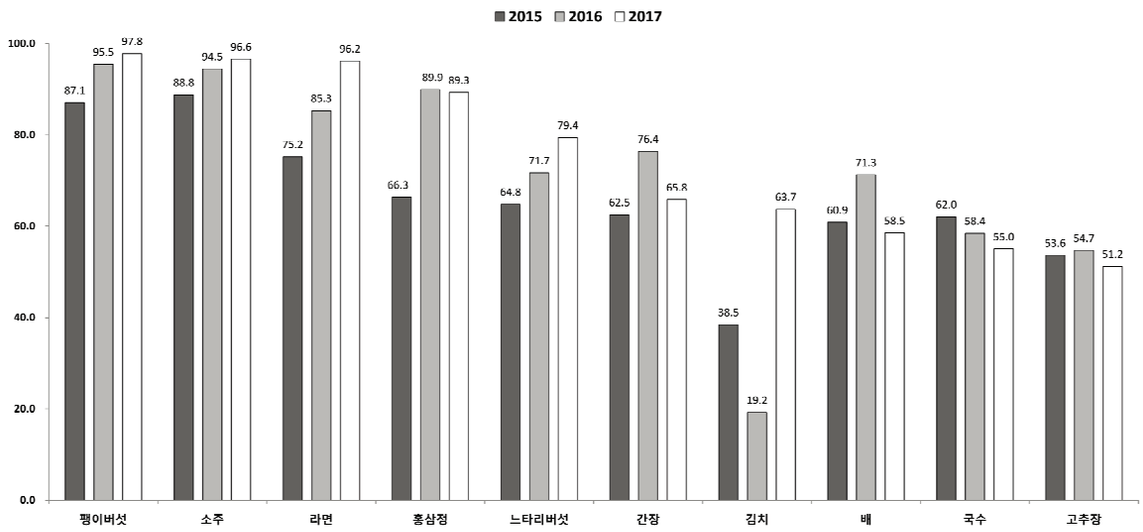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그림 4〉 2017년 주요 품목별 한 · 미 F.TA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단위: %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02 주요 품목별 수입 실태

미국산 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주요 축산물의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7.6% 증가

2.1. 축산물

□ 이행 6년차에는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17.6% 증가

○ 이행 5년차에 감소했던 미국산 축산물 수입이 주요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중심으로 증가한 가운데, 닭고기의 경우 수입액이 전년 대비 84.3% 증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수입단가 상승과 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21.3% 증가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액은 국내 수요 증가와 국산 돼지 도매가격 상승에 따른 가공용 식품 원료육 수입 증가로 전년 대비 15.7% 증가
- 미국산 닭고기 수입액은 2017년 3월 브라질산 닭고기 파동 여파와 미국산 닭고기의 수입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대비 84.3% 증가
- 미국산 유제품 수입액[8]은 미국 내 원유 및 치즈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로 전년 대비 22.4% 증가

〈표 3〉 미국산 주요 축산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1년차('12) (B)	2년차('13) (C)	3년차('14) (D)	4년차('15) (E)	5년차('16) (F)	6년차('17) (G)	증감률 발효 전 평년 대비 (G/A)	5년차 대비 (G/F)
쇠고기	수입액	301	522	578	764	802	1,035	1,256	92.3*	21.3
	수입량	62	106	101	112	115	169	190	47.8*	12.6
돼지고기	수입액	225	391	313	403	455	393	455	102.3	15.7
	수입량	98	131	112	121	151	149	170	72.7	13.7
닭고기	수입액	54	91	71	96	16	8	16	-71.0	84.3
	수입량	39	54	45	65	11	7	12	-68.6	73.9
유제품	수입액	90	196	260	380	300	212	259	188.7	22.4
	수입량	41	64	78	100	92	77	84	102.7	9.3
치즈	수입액	56	141	188	301	251	169	209	271.8	24.0
	수입량	13	32	43	64	55	40	49	277.6	22.6
탈·전지 분유	수입액	0.9	6.9	24.1	32.7	12.8	12.6	17.3	1849.0	38.1
	수입량	0.3	1.9	6.3	8.0	5.7	6.1	7.8	2587.0	27.0
전체 축산물	수입액	1,153	1,898	1,925	2,326	2,149	2,108	2,478	115.0	17.6
	수입량	461	558	518	561	520	546	611	32.6	11.9

*쇠고기의 발효 전 평년 대비 증감률은 미국 광우병(BSE) 발병으로 인한 수입금지 조치로 발효 전 평년값에 이상치(Outlier)가 발생함에 따라 FTA 발효 직전 연도인 2011년(수입액 6.53억 달러, 수입량 12.8만 톤) 기준으로 산출함.

주 1) 발효 전 평년은 2007~2011년 수입액(량) 중 최댓값·최솟값을 제외한 올림픽 평균값임.

2) 전체 축산물은 신선·가공 축산물을 포함한 총 685개 세번의 합계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8) 유제품 73개 세번을 기준으로 함. 각종 치즈와 우유, 버터, 분유(조제, 탈지, 전지)등 포함.

미국산 축산물 수입가격은 FTA 미발효 시 대비 평균 13.4% 하락 추정

□ 이행 6년차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평균 13.4%의 하락 추정

○ 2017년 미국산 주요 축산물의 수입가격은 FTA 미발효 시(가정)와 비교하여 쇠고기 11.4%, 돼지고기 19.8%, 닭고기 10.0%의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쇠고기에 대한 FTA 관세율은 2026년에 모두 철폐될 예정이며, 2017년에는 협정관세율 24%가 적용
-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에 대한 관세율은 이미 철폐되었고, 냉장은 2021년까지 철폐될 예정으로 2017년에는 협정관세율 9%가 적용
- 닭고기에 대한 FTA 관세율은 2023년에 모두 철폐될 예정이며, 2017년 협정관세율은 기본관세율(20%)의 절반 수준임.

〈표 4〉 미국산 주요 축산물 관세율 하락효과

단위: 원/kg, %

구 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행 6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10,619	3,687	1,431
	FTA 발효(B)	9,405	2,958	1,288
관세율 하락효과(B/A)		-11.4	-19.8	-10.0
주요 축산물 평균		-13.4		

주 1) 쇠고기는 냉동·냉장 쇠고기와 냉동갈비, 돼지고기는 냉동 돼지고기와 냉장·냉동 삼겹살, 닭고기는 냉동 닭다리·닭가슴·닭날개를 대상으로 분석함.
2) 분석에 사용한 각 수입 품목은 미국산 수입 상위 3개 품목으로 전체 품목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85% 이상임.(품목별 전체 수입액 대비 분석품목 수입비중: 쇠고기 88.7%, 돼지고기 89.5%, 닭고기 95.8%)
3) 수입가격은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한 부위별 수입액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 값임.

□ 이행 6년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19만 톤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했으나, 과거 최대 수입량('03년, 24만 9천 톤)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

○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여 호주산을 제치고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점유율(45.9%) 1위를 차지

- 미국의 쇠고기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미국 내 사육마릿수 증가에 따른 수출 물량 확보, 경쟁국인 호주의 쇠고기 수출여건 악화[9]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약진이 두드러짐.
- 2017년에는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으나, 호주의 수출여건이 다시 호전될 경우 국내 수입쇠고기시장 경쟁이 심화될 전망됨(KREI 농업전망 2018).

○ 2017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1.8%)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은 FTA이행에 따른 관세율인하와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전년 대비 1.8% 상승한 9,405원으로 추정

9) '14~'15년 발생한 극심한 가뭄으로 방목이 어려워지자 도축마릿수가 늘어났고, 그 여파로 사육마릿수가 감소함.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7만 톤

〈표 5〉 미국산 쇠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발효 전 평년 대비 (G/A)	5년차 대비 (G/F)
미국	수입가격(원/kg)	7,704	7,934	8,536	9,669	10,389	9,241	9,405	22.1	1.8
	수입단가(달러/kg)	4.90	5.13	5.79	6.96	7.10	6.29	6.71	36.8	6.6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	-2.6
	관세율(%)	40.0	37.3	34.6	32.0	29.3	26.6	24.0	-40.0	-9.8
호주	수입가격(원/kg)	7,338	8,428	8,217	8,300	9,181	8,967	8,584	17.0	-4.3
	수입단가(달러/kg)	4.67	5.34	5.36	5.74	6.03	5.85	5.87	25.7	0.3
뉴질랜드	수입가격(원/kg)	5,470	6,172	6,232	7,093	6,844	6,668	6,988	27.8	4.8
	수입단가(달러/kg)	3.48	3.91	4.07	4.81	4.46	4.27	4.68	34.5	9.7
국내수급	생산량(천 톤)	186	234	260	261	255	231	239	28.5	3.5
	1인당 소비량(kg)	8.2	9.7	10.3	10.8	10.9	11.6	11.5	40.8	-0.9

주 1) 쇠고기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장쇠고기(0201300000), 냉동갈비(0202201000), 냉동쇠고기(0202300000) 기준이며, 3개 세번 수입량의 합은 이행 6년차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의 88.7%를 차지함.
2) 수입가격은 위의 3개 세번의 FTA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한 수입액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관세율은 분석에 사용한 3개 세번(냉장·냉동 쇠고기, 냉동갈비) 기준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8).

□ 이행 6년차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국내 수요 증가와 국산 돼지고기 도매가격 상승에 따른 가공용 식품 원료육 수입 증가의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7만 톤

○ 2017년 우리나라 돼지고기 전체 수입량은 53만 3천 톤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가운데, 미국산 수입량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며 전체 수입 증가 주도

- 국산 돼지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1만 톤 증가하였으나 국내 소비가 크게 증가하여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2만 1천 톤 증가
- 향후 미국 내 돼지고기 생산량 증가와 그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이 전망되어 미국산 수입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큼(KREI 농업전망 2018).

> ※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천 톤):
> 712(발효 전 평년) → 830(이행 3년) → 849(이행 4년) → 891(이행 5년) → 901(이행 6년)
> ※ 돼지고기 1인당 소비량(kg)[10]:
> 19.1(발효 전 평년) → 22.2(이행 3년) → 22.8(이행 4년) → 24.1(이행 5년) → 24.5(이행 6년)

○ 2017년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2.9% 상승하였으나, 환율 하락 및 냉장 삼겹살에 대한 관세율 하락 등으로 수입단가 상승효과가 상쇄된 것으로 추정

10) 이행 6년차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73.9% 증가한 1만 2천 톤

〈표 6〉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발효 전 평년 대비 (G/A)	5년차 대비 (G/F)
미국	수입가격(원/kg)	3,088	3,784	3,257	3,610	3,465	2,955	2,958	-4.2	0.1
	수입단가(달러/kg)	2.21	2.89	2.65	3.16	2.94	2.54	2.61	18.3	2.9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	-2.6
	관세율(%)	25.0	16.0	12.0	8.0	4.0	0.0	0.0	-	-
EU	수입가격(원/kg)	3,944	4,274	3,979	3,884	3,554	3,376	3,962	0.5	17.4
	수입단가(달러/kg)	2.81	3.18	3.11	3.26	2.88	2.73	3.31	17.8	21.4
국내 수급	생산량(천 톤)	712	750	854	830	849	891	901	26.5	1.1
	1인당 소비량(kg)	19.1	19.2	20.9	22.2	22.8	24.1	24.5	28.0	1.7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동돼지고기(0203299000), 냉동삼겹살(0203291000), 냉장삼겹살(0203191000)이며, 3개 세번 수입량 비중은 이행 6년차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량의 89.5%를 차지함.
2) 수입가격은 냉동돼지고기, 냉동삼겹살, 냉장삼겹살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협정관세율은 냉동돼지고기(목살, 전·후지)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8).

□ 이행 6년차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은 1만 2천 톤으로 브라질산 닭고기 파동(2017년 3월)에 따른 안전성 우려로 수입선이 미국산으로 전환되어 전년 대비 크게(73.9%) 증가

○ 닭고기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에서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닭고기 수출 문제(2017년) 등으로 수입선이 미국과 태국 등으로 전환됨.

- 2017년 하반기에도 브라질산 닭고기 파동 여파가 지속되어 브라질산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함.
- 2017년 3월,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7만 4천만 마리 규모의 종계장에서 H7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8월부터 청정국 지위가 회복되어 미국산 수입이 재개됨.

※ 최근 5개년 미국,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량(천 톤)
미국 : 45.3(2013년) → 64.9(2014년) → 10.8(2015년) → 7.1(2016년) → 12.4(2017년)
브라질 : 59.4(2013년) → 52.4(2014년) → 80.1(2015년) → 93.6(2016년) → 86.3(2017년)

※ 이행 6년차 기준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비중은 브라질산이 65.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태국산(17.1%), 미국산(9.4%), 덴마크산(4.1%) 순임.

○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1.7%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미국산 닭고기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2.8% 상승한 반면,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하락과 환율 하락 등으로 수입가격은 전년 대비 하락

미국산 유제품(치즈, 분유 등) 수입량은 전년 대비 9.3% 증가한 8만 4천 톤

〈표 7〉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발효 전 평년 대비 (G/A)	5년차 대비 (G/F)
미국	수입가격(원/kg)	1,826	2,202	1,983	1,771	1,749	1,310	1,288	-29.5	-1.7
	수입단가(달러/kg)	1.36	1.66	1.56	1.48	1.38	1.03	1.05	-22.2	2.8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	-2.6
	관세율(%)	20.0	18.0	16.0	14.0	12.0	10.0	8.0	-60.0	-20.0
브라질	수입가격(원/kg)	3,232	3,449	3,255	3,335	3,143	2,499	2,663	-17.6	6.6
	수입단가(달러/kg)	2.40	2.55	2.48	2.64	2.31	1.79	1.96	-18.2	9.4
국내수급	생산량(천 톤)	407	464	473	528	585	599	565	38.8	-5.7
	1인당 소비량(kg)	9.8	11.6	11.5	12.8	13.4	13.9	13.6	39.2	-2.2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냉동닭다리(0207141010), 냉동닭가슴(0207141020), 냉동닭날개(0207141030)이며, 3개 세번 수입량 비중은 2016년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의 95.8%를 차지함.
2) 수입가격은 냉동닭다리, 냉동닭가슴, 냉동닭날개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협정관세율은 냉동닭다리를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KREI 농업전망(2018).

□ 이행 6년차 미국산 유제품[11] 수입량은 8만 4천 톤으로 미국 내 원유 및 치즈 생산량 증가로 수출물량이 확대되어 전년 대비 9.3% 증가

○ 2016년부터 EU산 유제품 수입비중이 미국산 비중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됨.

- EU산 유제품의 수입비중 상승 원인은 EU의 쿼터제 폐지에 따른 원유 생산량 증가로 주요 품목(모차렐라치즈)의 수입단가가 하락했기 때문

> ※ 최근 5개년 EU, 미국산 유제품 수입비중(%)
> EU : 29.5(2013년) → 33.6(2014년) → 37.1(2015년) → 45.9(2016년) → 47.7(2017년)
> 미국 : 38.2(2013년) → 45.6(2014년) → 39.1(2015년) → 29.4(2016년) → 29.4(2017년)

- 2017년 유제품 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은 29.4%로 전년과 동일했지만, EU산 비중은 47.7%로 전년 대비 1.8%p 증가함.

○ 2017년 미국산 치즈 수입량은 FTA TRQ 물량(8,115톤)을 초과한 약 5만 톤이며, TRQ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체더 14.4%, 그 외 치즈 21.6%)가 적용됨.

- 체더치즈의 경우 TRQ 쿼터가 적용되어 FTA 발효 후 10년에 걸쳐 관세율이 철폐('21년 철폐)되며, 10년차부터는 쿼터물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그 외 모든 치즈의 관세율은 15년간 철폐될 예정이며 철폐 이후에는 TRQ 물량이 무제한으로 증량됨.[12]

11) 유제품 73개 세번을 기준으로 함. 각종 치즈와 우유, 버터, 분유(조제, 탈지, 전지) 등 포함.

- 치즈의 FTA TRQ 물량은 매년 3%씩 복리로 증량되며, 이행 15년차인 2026년 이후부터는 무한 증량됨.

※ 쿼터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
체더치즈: 32.4(이행 1년) → 28.8(이행 2년) → 25.2(이행 3년) → 21.6(이행 4년) → 18(이행 5년) → 14.4(이행 6년)
그 외 치즈: 33.6(이행 1년) → 31.2(이행 2년) → 28.8(이행 3년) → 26.4(이행 4년) → 24(이행 5년) → 21.6(이행 6년)

〈표 8〉 국가별 유제품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톤, 달러/kg

구 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치즈	미국	수입액	56,244	140,596	188,384	301,316	250,749	168,634	209,125
		수입량	12,981	31,877	42,530	63,848	54,821	39,966	49,012
		수입단가	4.3	4.4	4.4	4.7	4.6	4.2	4.3
	EU	수입액	37,623	71,152	74,399	106,268	148,603	172,901	197,002
		수입량	5,621	11,468	10,804	15,747	31,966	44,601	44,476
		수입단가	6.7	6.2	6.9	6.7	4.6	3.9	4.4
	뉴질랜드	수입액	72,091	100,858	102,242	50,522	63,614	55,466	79,933
		수입량	18,054	23,908	23,883	10,139	15,643	16,646	19,803
		수입단가	4.0	4.2	4.3	5.0	4.1	3.3	4.0
분유 (탈지+전지)	미국	수입액	899	6,889	24,113	32,743	12,776	12,561	17,351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699	6,117	7,765
		수입단가	3.11	3.55	3.85	4.10	2.24	2.05	2.23
	EU	수입액	5,222	33,381	27,573	37,076	23,676	20,438	24,518
		수입량	1,542	10,417	6,807	8,312	8,720	8,735	9,407
		수입단가	3.4	3.2	4.1	4.5	2.7	2.3	2.6
	호주	수입액	18,575	22,562	24,924	24,862	19,537	12,585	14,662
		수입량	6,145	6,739	6,566	5,546	7,004	6,095	6,215
		수입단가	3.0	3.3	3.8	4.5	2.8	2.1	2.4

주: 본 표의 수입량은 품목별 전체 세번(HSK)의 합임. 치즈(14개 세번), 탈지+전지분유(6개 세번)

○ 2017년 미국산 탈·전지분유의 수입량은 7,765톤으로 FTA TRQ 물량(5,797톤)을 초과하였고, FTA TRQ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176%의 고율관세가 적용되며[13], 조제분유의 경우 FTA TRQ 물량에 크게 못 미친 30톤 수준

- 다만, 탈·전지분유의 경우 WTO 양허규정에 의해 TRQ 물량이 책정되어 있고, WTO TRQ 물량 내에서는 20%의 관세율로 수입되기 때문에, 실제로 176%의 관세율이 부과된 수입물량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12) 커드(0406102000), 블루바인(040640000)치즈는 체더치즈와는 달리 FTA TRQ에 적용되지 않으나 두 품목의 관세율은 10년에 걸쳐 철폐됨.

13) 탈·전지분유의 FTA TRQ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176%의 고율관세가 적용되며, 2017년부터는 매년 3%씩 복리로 물량이 증량됨.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

〈표 9〉 미국산 치즈·분유 FTA TRQ 및 수입 동향

단위: 톤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치즈	FTA TRQ	-	7,000	7,210	7,426	7,649	2,879	8,115
	수입량	12,981	31,877	42,530	63,848	54,821	39,966	49,012
분유 (탈지+전지)	FTA TRQ	-	5,000	5,150	5,305	5,464	5,628	5,797
	수입량	289	1,941	6,265	7,989	5,699	6,117	7,765
조제 분유	FTA TRQ	-	700	721	743	765	788	811
	수입량	158	266	141	136	82	50	30

주: 본 표의 수입량은 FTA TRQ 물량으로 수입되는 세번만을 고려한 값임. 치즈(12개 세번), 탈지+전지분유(6개 세번), 조제분유(2개 세번)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2.2. 과일

□ **이행 6년차 미국산 과일 품목별 수입량이 대체로 감소했음에도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수입액은 전년 대비 13.4% 증가**

○ 2017년 미국산 오렌지를 제외한 체리, 석류, 포도, 레몬, 자몽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모두 증가

- 미국산 오렌지 수입액은 작황 부진으로 수입량이 10.1% 감소한 가운데 수입단가 상승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유지
- 미국산 체리 수입액은 작황 호조에 따른 수입량 증가와 수입단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32.0% 증가
- 미국산 석류 수입액은 작황 부진으로 수입량이 8.9% 감소한 반면,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전년 대비 8.0% 증가
- 미국산 포도 수입액은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량이 전년 대비 34.9% 증가하면서 동 기간 37.0% 증가
- 미국산 레몬과 자몽 수입량은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반면, 수입단가가 상승하여 수입액은 각각 2.3%와 5.2% 증가

미국산 과일 수입가격은 FTA 발효 미발효 시 대비 평균 24.2% 하락 추정

〈표 10〉 미국산 과일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증감률 발효 전 평년 대비 (G/A)	5년차 대비 (G/F)
주요 신선과일	오렌지	수입액	110	211	186	156	163	210	209	90.6	-0.4
		수입량	92,564	166,931	145,741	91,209	102,884	146,483	131,675	42.3	-10.1
	체리	수입액	30	81	88	123	120	110	145	385.2	32.0
		수입량	3,748	9,325	8,936	13,080	12,076	12,387	16,022	327.5	29.3
	석류	수입액	10	19	28	24	19	10	11	8.5	8.0
		수입량	4,892	8,702	13,596	10,760	8,638	4,333	3,948	-19.3	-8.9
	포도	수입액	9	16	20	20	18	23	31	246.6	37.0
		수입량	3,799	5,951	7,579	7,027	6,034	7,523	10,145	167.1	34.9
	레몬	수입액	8	15	24	25	33	31	32	314.7	2.3
		수입량	4,584	9,250	12,619	10,706	12,962	13,152	12,399	170.5	-5.7
	자몽	수입액	7	11	12	14	19	16	17	158.2	5.2
		수입량	5,849	8,681	9,487	10,911	14,116	11,821	11,185	91.2	-5.4
전체 과일		수입액	263	513	542	538	550	556	631	140.1	13.4
		수입량	149,407	255,691	258,110	199,119	213,315	245,161	240,915	61.2	-1.7

주 1) 석류는 기타 과일 중 HSK 0810909000 기준임. 기타 미국산 신선과일로는 크랜베리, 아보카도, 멜론 등이 있으나 수입규모는 미미함.
2) 전체 과일은 미국에서 수입되는 신선, 가공 과일 HSK 세번 모두 포함한 값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이행 6년차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가격은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로 평균 24.2% 하락 추정

○ 2017년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의 수입가격은 FTA 미발효 시(가정)와 비교하여 오렌지 30.0%, 체리 19.4%, 포도 31.0%, 석류 18.6%, 레몬 23.1%, 자몽 23.1%의 가격 하락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오렌지에 대해 3~8월에 적용되는 계절관세율은 2018년 완전 철폐되고, 1~2월과 9~12월에는 기본관세율(50%)이 유지됨.
- 체리와 레몬에 대한 기본관세율 24%와 30%가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무관세가 적용됨.
- 포도에 대해 1~4월, 10월 16일~12월 적용되는 계절관세율은 2017년 완전 철폐되었고, 그 외 기간에는 기본관세율(45%)이 17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2017년 협정관세율 29.1%가 적용됨.
- 석류에 대한 기본관세율 45%는 10단계에 걸쳐 감축되며 2017년 협정관세율 13.5%가 적용
- 자몽에 대한 기본관세율 30%는 5단계에 걸쳐 감축되어 2016년부터 이미 무관세가 적용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전년 대비 10.1% 감소한 13만 2천 톤

〈표 11〉 미국산 주요 신선과일 관세율 하락 효과

단위: 원/kg

구 분		오렌지	체리	포도	석류	레몬	자몽
이행 5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2,697	12,707	5,083	4,577	3,735	2,269
	FTA 발효(B)	1,888	10,247	3,506	3,725	2,873	1,745
관세하락효과(B/A)		-30.0	-19.4	-31.0	-18.6	-23.1	-23.1
신선과일 평균(%)		-24.2					

주: 각 수입 품목은 신선과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이행 6년차 미국산 오렌지 수입량은 미국 주산지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10.1% 감소한 13만 2천 톤

○ 2017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량은 전년 대비 10.1% 감소

○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은 관세율 인하(10% → 5%)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 상승(1.4달러/kg → 1.6달러/kg)으로 전년 대비 4.3% 상승한 것으로 추정

※ FTA TRQ 물량(톤): 2,732(이행 4년차) → 2,814(이행 5년차) → 2,898(이행 6년차)
※ 미국 오렌지 생산량: 6,088천 톤('15/'16) → 5,164천 톤('16/'17)(USDA)
※ 미국(캘리포니아) 오렌지 생산량: 2,340천 톤('15/'16) → 2,012천 톤('16/'17)(USDA)

〈표 12〉 미국산 오렌지 수입가격(3~8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발효 전 평년 대비 (G/A)	5년차 대비 (G/F)
수입가격(원/kg)	1,944	1,860	1,741	2,166	2,059	1,810	1,888	-2.9	4.3
수입단가(달러/kg)	1.2	1.3	1.3	1.7	1.6	1.4	1.6	37.7	12.1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	-2.6
관세율(%)	50	30	25	20	15	10	5	-90.0	-50.0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오렌지(08051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오렌지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3~8월까지 수입되는 미국산 오렌지는 계절관세가 적용(관세는 6년에 걸쳐 철폐 예정).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통계청.

□ 이행 6년차 미국산 체리의 수입량은 미국 주산지 작황 호조 등으로 전년 대비 29.4% 증가한 1만 6천 톤

○ 2017년에는 미국 북서부와 캘리포니아의 작황 호조로 미국산 체리 수입량은 전년 대비 29.3% 증가

- 미국산 체리에 대한 관세율은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수입량은 관세율보다 미국 주산지 작황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임.

※ 미국 체리 생산량 : 417천 톤('15) → 458천 톤('16) → 495천 톤('17. 9) (USDA)
※ 미국 체리 수출량 : 75천 톤('15) → 76천 톤('16) → 110천 톤('17. 9) (USDA)

미국산 체리와 포도 수입량은 주산지 작황 호조 및 국내 수요 증가로 전년 대비 각각 29.4%와 34.9% 증가

○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은 관세율이 FTA 발효 즉시 철폐되어 수입단가와 환율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음.

- 이행 6년차 미국산 체리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2.1% 상승한 반면, 환율은 2.6% 하락하여 수입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0.5%) 하락한 것으로 추정

〈표 13〉 미국산 체리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발효 전 평년 대비 (G/A)	5년차 대비 (G/F)
수입가격(원/kg)	11,760	9,780	10,724	9,908	11,230	10,298	10,247	-12.9	-0.5
수입단가(달러/kg)	8.4	8.7	9.8	9.4	9.9	8.9	9.1	7.2	2.1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	-2.6
관세율(%)	24.0	0.0	0.0	0.0	0.0	0.0	0.0	-100.0	-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체리(080929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체리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FTA이행지원센터(2018).

□ 이행 6년차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관세율 인하 및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

○ 2017년 미국산 포도 수입량은 관세율 및 환율 하락, 국내 수요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한 1만 톤

○ 미국산 포도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관세율과 환율이 각각 8.2%와 2.6% 하락하여 수입가격은 전년 대비 1.5~2.0% 하락한 것으로 추정

〈표 14〉 미국산 포도 수입가격(10월 16일~익년 4월)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관세 유형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발효 전 평년 대비 (G/A)	5년차 대비 (G/F)
수입가격(원/kg)	3,902	일반관세	3,978	3,906	4,158	4,580	4,699	4,603	18.0	-2.0
		계절관세	3,780	3,467	3,449	3,540	3,531	3,477	-10.9	-1.5
수입단가(달러/kg)	2.4	일반관세	2.5	2.6	2.9	3.0	3.1	3.2	32.0	2.6
		계절관세	2.7	2.7	2.9	3.0	3.0	3.1	28.7	1.0
환율(원/달러)	1,122	-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	-2.6
관세율(%)	45.0	일반관세	42.3	39.7	37.0	34.4	31.7	29.1	-35.3	-8.2
		계절관세	24.0	18.0	12.0	6.0	0.0	0.0	-100.0	-

주 1) 수입가격 분석대상은 신선포도(080610000)를 기준으로 함.
2) 수입가격은 신선포도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미국산 포도는 10월 16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계절관세가 적용됨.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FTA이행지원센터(2018).

미국산 곡물 전체 수입액은 전년 대비 5.0% 증가

2.3. 곡물류(식용)

□ **이행 6년차 미국산 곡물 수입액은 대두 수입액이 감소한 반면, 옥수수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5.0% 증가**

○ 2017년 미국산 전체 곡물 수입액은 수입단가 하락(△4.3%)에도 불구하고, 옥수수와 밀 등의 수입량이 9.8% 증가하여 전년 대비 5.0% 증가

- 미국산 옥수수(식용) 수입액은 이행 4년차부터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이행 6년차에는 전년 대비 11.5% 증가

  ※ 수입선이 미국으로 전환되면서 러시아(△10.1%), 브라질(△39.4%)로부터의 수입은 감소

- 미국산 밀(식용) 수입량은 소폭(1.6%) 증가했으나, 수입단가 하락으로 수입액은 전년 대비 4.2% 감소
- 미국산 대두(식용) 수입액은 국내 생산량 증가 및 TRQ 도입 물량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9.6% 감소

〈표 15〉 미국산 주요 곡물(식용)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천 톤, %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발효 전 평년 대비 (G/A)	5년차 대비 (G/F)
주요 곡물	옥수수	수입액	315	49	38	282	110	139	155	-50.8	11.5
		수입량	1,141	115	87	1,021	462	660	760	-33.4	15.2
	밀	수입액	389	437	428	381	355	291	279	-28.2	-4.2
		수입량	1,197	1,210	1,135	1,106	1,134	1,117	1,134	-5.3	1.6
	대두	수입액	77	129	160	169	159	124	112	46.4	-9.6
		수입량	134	191	212	233	252	225	198	47.7	-12.2
전체 곡물		수입액	2,787	2,375	1,442	2,760	1,947	1,878	1,973	-29.2	5.0
		수입량	9,222	6,493	2,857	8,412	6,338	7,131	7,830	-15.1	9.8

주: 전체 곡물은 미국산 곡물의 전체 수입량이며, 각 품목별 수입량은 식용(종자, 사료 등을 제외) 기준임.
자료: 무역통계진흥원.

□ **이행 6년차 미국산 곡물은 대부분 FTA TRQ 물량으로 수입되어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하락효과가 미미함.**

○ 2017년 미국산 주요 곡물 수입가격은 FTA 미발효 시(가정)와 비교하여 옥수수 1.6%, 밀 1.8%, 대두 1.1%의 수입가격 하락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수입선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15.2% 증가한 76만 톤

〈표 16〉 미국산 주요 곡물(식용) 관세율 하락효과

단위: 원/kg

구 분		옥수수	밀	대두
이행 6년차 수입가격	FTA 미발효(A)	238	283	674
	FTA 발효(B)	234	278	667
관세하락효과(B/A)		-1.6	-1.8	-1.1
주요 곡물 평균(%)		-1.5		

주: 각 수입 품목은 식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 이행 6년차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타 국가로 수입선 전환이 점차 회복되어 전년 대비 15.2% 증가

○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은 이행 1~2년차에 미국 주산지 작황 부진에 따라 브라질과 세르비아 등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면서 급감하였으나, 이행 4년차부터는 회복세를 나타냄.

○ 미국산 옥수수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및 환율 하락과 관세율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5.6% 하락한 것으로 추정

〈표 17〉 미국산 옥수수(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발효 전 평년 대비 (G/A)	5년차 대비 (G/F)
미국	수입가격(원/kg)		332	481	479	297	272	248	234	-29.6	-5.6
	수입단가(달러/kg)		0.28	0.42	0.44	0.28	0.24	0.21	0.20	-26.9	-3.3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	-2.6
	팝콘용 ASG	물량(천 톤)	-	5.1	6.4	7.7	8.9	10.2	10.7	-	5.0
		관세(%)	630	601	572	544	515	486	365	-42.1	-24.9
	기타 옥수수 ASG	물량(천 톤)	-	188	234	281	328	375	394	-	5.0
		관세(%)	328	313	298	283	268	253	190	-42.1	-24.9
	수입량(천 톤)		1,141	115	87	1,021	462	660	760	-33.4	15.2
브라질	수입량(천 톤)		139	419	694	236	390	323	196	40.4	-39.4
	수입단가(달러/kg)		0.30	0.30	0.32	0.26	0.21	0.20	0.19	-36.8	-3.8
러시아	수입량(천 톤)		0.00	-	-	225	372	942	846	-	-10.1
	수입단가(달러/kg)		1.40	-	-	0.26	0.21	0.19	0.20	-85.6	3.6
세르비아	수입량(천 톤)		51	663	216	326	373	92	166	223.5	79.9
	수입단가(달러/kg)		0.08	0.34	0.32	0.28	0.22	0.22	0.20	147.2	-5.1

주 1) 수입가격은 분석 대상은 기타옥수수(1005909000), 팝콘용(1005902000), 옥수수가루(1102200000) 등 5개 세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 기타옥수수, 팝콘용, 옥수수가루 등 5개 세번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ASG 물량 미만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수입옥수수에 대한 WTO TRQ 물량과 FTA TRQ 물량이 모두 미국산에 배정되었다는 가정하에 수입가격을 산출함.
4) 수입량은 수입가격 분석에 사용한 5개 세번의 합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미국산 밀 수입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113만 4천 톤

□ FTA 발효 후 미국산 밀 수입량은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행 6년차 수입량은 전년 대비 소폭(1.6%) 증가

○ 2017년 미국산 밀 수입량은 수입단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평년 수준인 113만 4천 톤을 기록

○ 미국산 밀 수입가격은 수입단가 및 환율 하락과 관세율 인하 등으로 전년 대비 8.1% 하락한 것으로 추정

〈표 18〉 미국산 밀(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발효 전 평년 대비 (G/A)	5년차 대비 (G/F)
미국	수입가격(원/kg)		386	407	413	363	355	303	278	-27.9	-8.1
	수입단가(달러/kg)		0.33	0.36	0.38	0.34	0.31	0.26	0.25	-24.4	-5.7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	-2.6
	관세율(%)	제분용	1.80	0.0	0.0	0.0	0.0	0.0	0.0	-100.0	-
		기타	1.80	0.0	0.0	0.0	0.0	0.0	0.0	-100.0	-
	수입량(천 톤)		1,197	1,210	1,135	1,106	1,134	1,117	1,134	-5.3	1.6
호주	수입가격(원/kg)		387	383	434	361	329	295	278	-28.2	-5.8
	수입단가(달러/kg)		0.33	0.33	0.39	0.34	0.29	0.25	0.25	-25.0	-3.3
	수입량(천 톤)		840	1,028	954	1,023	1,074	1,052	1,091	29.9	3.8
캐나다	수입가격(원/kg)		485	484	430	388	381	315	334	-31.2	6.2
	수입단가(달러/kg)		0.41	0.42	0.39	0.37	0.34	0.27	0.30	-28.5	8.9
	수입량(천 톤)		167	179	170	167	202	148	227	36.2	53.1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메슬린 외 기타(1001992090), 밀가루(1101001000) 등 14개 세번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 메슬린 외 기타, 밀가루 14개 세번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수입량은 밀 수입가격 분석에 사용한 14개 세번의 합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 이행 6년차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증가 및 TRQ 도입 물량 감소로 전년 대비 12.2% 감소

○ 2017년 미국산 대두의 FTA TRQ 증량에도 불구하고 국내 작황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 등으로 TRQ 도입 물량은 오히려 감소

※ 한·미 FTA TRQ 물량(톤): 2만('13)→ 2만 5천('14)→ 2만 5,750톤('15)→ 2만 6,523톤('16)→ 2만 6,603천('17)

○ 미국산 대두 수입가격은 수입단가가 3.0% 상승한 가운데 환율 하락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

〈표 19〉 미국산 대두(식용) 수입가격 분석

구분			발효 전 평년 ('07~'11) (A)	발효 후 이행						증감률(%)	
				1년차 ('12) (B)	2년차 ('13) (C)	3년차 ('14) (D)	4년차 ('15) (E)	5년차 ('16) (F)	6년차 ('17) (G)	발효 전 평년 대비 (G/A)	5년차 대비 (G/F)
미국	수입가격(원/kg)		847	795	862	796	744	666	667	-21.2	0.2
	수입단가(달러/kg)		0.60	0.68	0.75	0.73	0.63	0.55	0.57	-4.5	3.0
	환율(원/달러)		1,122	1,127	1,095	1,053	1,131	1,161	1,131	0.8	-2.6
	FTA TRQ	HSK1201 (톤)	-	10,000	20,000	25,000	25,750	26,523	26,603	-	0.3
		관세율(%)	5	0	0	0	0	0	0	-100.0	-
	수입량(천 톤)		134	191	212	233	252	225	198	47.7	-12.2
중국	수입가격(원/kg)		886	1,143	1,266	1,175	1,042	1,154	1,177	32.9	2.0
	수입단가(달러/kg)		0.72	0.97	1.10	1.06	1.18	1.02	0.94	31.9	-7.2
	수입량(천 톤)		158	124	55	75	27	37	42	-73.4	14.8

주 1) 수입가격 분석 대상은 콩나물용(1201903000), 기타(1201909000), 대두로 만든 것(120810000)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2) 수입가격은 콩나물용, 기타, 대두로 만든 것(분쇄)의 수입액(환율, 관세율 적용) 합계를 수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함.
3) 수입량은 대두 수입가격 분석에 사용한 3개 세번의 합임.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은행; FTA 협정문.

03 시사점 및 향후 과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한 가운데 수입구조 변화가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남

□ **한·미 FTA 이행 6년차('17년)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이 전년 대비 13.1% 증가한 가운데 수입구조 변화가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남.**

○ 국내 생산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무역 창출효과와 전환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단가가 호주산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면에서의 비교우위 및 국내 고급 냉장육 수요 증가로 미국산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됨.
- 2017년 전체 쇠고기 수입량이 2.7% 증가한 가운데 미국산 수입량은 12.6% 증가했고,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은 각각 4.5%와 14.5% 감소함.
- 결국, 2004년 미국 내 광우병 발생으로 호주산 쇠고기에 내주었던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탈환함.

○ 한편, 국내 HPAI 발생, 살충제계란 파동, 브라질산 부패 닭고기 파동으로 국내 닭고기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서도 미국산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입 전환효과가 나타남.

- 2017년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량은 7.8% 감소했고, 미국산과 태국산은 각각 73.9%와 46.7% 증가함.

○ 미국산 과일 중 작황 호조를 보인 체리와 포도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무역 창출효과를 보였으나, 오렌지, 석류, 레몬, 자몽 수입량은 감소

- FTA 이행으로 미국산 주요 과일에 대해 관세율이 이미 철폐되었거나 단계적으로 감축되는 상황에서 미국 내 작황 변화가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또한, 작황 부진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액은 오히려 증가

○ 미국산 옥수수(식용) 수입량은 FTA 이행 1~2년차에 작황 부진으로 급감했고, 이행 4년차부터 회복세를 보이며 수입 전환효과를 나타냄.

- 2017년 미국산 옥수수 수입량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하여 수입시장 점유율이 29.4%에서 32.5%로 확대되었고, 동 기간 러시아산과 브라질산 수입량은 각각 10.1%와 39.4% 감소함.

농축산물 교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업부문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시급

□ 對미 농축산물 수출은 FTA 발효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 제고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필요

○ 2017년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7.1% 증가한 가운데 對미 수출 증가율은 4.1%에 그침.

-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신선 농산물 등의 수출 유망품목 발굴이 필요하며, 이에 2017년 팽이버섯, 신선 배, 김치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임.

○ 對미 수출 특혜관세 활용률이 50% 이하로 저조한 상황이며,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관련 교육과 홍보, 원산지 증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정부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가 필요

- 또한, 전체 수출품목 중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으로 국산 가공원료 사용을 장려하여 국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야 함.

□ 한 · 미 FTA 이행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시장개방화가 가속화되고 최근 국내외 경기 회복으로 농축산물 수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피해 가시화에 대비할 필요

○ 2017년 농축산물 교역실적에 기초할 때, FTA 요인 외에도 가축질병과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국내외 수급 불안정, 국내 소비패턴 변화 등이 수입구조에 영향을 미침.

- 또한,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통상환경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농축산물 교역에 있어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이처럼 농축산물 교역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농축산물 수급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대응전략임.

- 더 나아가 현재 추진 중인 FTA 국내보완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농업부문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함.

KREI 농정포커스

2018년

제162호 한·미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박수연, 한석호)
제161호 농업 · 농촌에 대한 2017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송성환, 박혜진)
제160호 2018년 10대 농정 이슈(김병률, 이명기 등)

2017년

제159호 한·중, 한·베트남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남경수, 염정완, 김만이)
제158호 국제농업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허장)
제157호 농가유형에 따른 소득 변화와 시사점(우병준, 임소영, 이두영, 이형용, 한보현)
제156호 2017년 김장 의향 및 김장채소 수급 전망(김성우, 최선우, 임효빈, 한은수, 신성철, 김창수, 노호영, 김원태)
제155호 201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성재훈, 이혜진, 정학균)
제154호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김태훈, 박동규, 김종진, 김종인, 윤종열, 조남욱, 채주호)
제153호 2017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출하 및 가격 전망(박미성, 노호영, 이형우, 김종인, 이상민, 황의식)
제151호 최근 귀농·귀촌 실태와 시사점(김정섭, 이정해)
제150호 한 · EU FTA 발효 6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시사점(송우진, 이현근, 남경수, 김만이, 명수환)
제149호 소 사육 통계의 이력제 자료 대체와 시사점(이형우, 김진년, 서홍석, 김충현)
제148호 농산업의 청년 고용 창출 가능성 및 과제(마상진, 엄진영, 김경인)
제147호 한 · 아세안 FTA 발효 10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유정호, 유주영)
제146호 효과적인 산불관리를 위한 개선과제(정호근, 안현진, 이상민)
제145호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과 30대 과제(이명기, 송미령, 유찬희, 국승용, 김정섭, 김홍상, 박준기 등)
제144호 한·미 FTA 발효 5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수환, 박수연 정민국)
제143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정책 개선 방향(지인배, 김현중, 김원태, 서강철)
제142호 2017년 10대 농정이슈(김병률, 이용선, 김연중 등)
제141호 7차 HPAI 발생 이후 가금산물 가격 동향과 전망(이형우, 정세미, 지선우, 김형진, 한봉희)

2016년

제140호 2016년 한 ·영연방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송우진, 이현근, 유정호, 한석호)
제139호 농업 ·농촌에 대한 201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38호 2016년 한 ·중, 한 ·베트남 FTA 이행과 농축산물 교역 동향(지성태, 이수환, 염정완, 한석호)
제137호 농축산물 가격변화의 소비자물가 기여도 분석(박미성, 윤선희, 김라이)
제136호 쌀 수급 동향 및 안정 방안(김태훈, 조남욱, 김종인, 우병준)
제135호 2016년 가구의 김장 수요와 채소 공급 전망(김성우, 송성환, 노호영, 임효빈, 최선우, 한은수, 이형용, 노수정)
제134호 당류 저감 정책에 따른 과일산업의 대응과제(박미성, 신성철)
제133호 2016년 추석 성수기 주요 농림축산물의 소비 ·출하 및 가격 전망
(박미성, 이상민, 성명환, 우병준, 김태훈, 김성우, 장철수, 송미령)
제132호 농가유형별 소득구조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오내원, 황의식)
제131호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정학균, 이혜진, 김창길)

KREI 농정포커스

제130호 수의간호복지사 제도 도입(김현중, 국승용)
제129호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선물 수요 변화 전망(이용선, 이형우, 이미숙)
제128호 브렉시트(Brexit)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분석과 시사점(한석호, 서홍석, 지성태, 이상현, 염정완, 정호연)
제127호 한 ·EU FTA 발효 5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26호 농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개선(국승용, 최지현)
제125호 2016년 일본 아베 정부의 농정개혁 현황과 시사점(김종인)
제124호 개도국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허 장, 이윤정)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제123호 지역 단위 6차산업화의 추진 방향과 과제(정도채, 성주인, 심재헌)
제122호 곤충산업 실태와 육성정책 방향(김연중, 박영구)
제121호 한 · 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유정호)
제120호 2016년 10대 농정 이슈(송미령, 김홍상, 박준기 등)

2015년
제119호 농업 · 농촌에 대한 2015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118호 닭고기 수급 불균형과 파급 영향(우병준, 김형진)
제117호 2015년 김장철 채소류 수급 전망과 절임배추 소비특성 분석(최병옥, 송성환, 노호영, 윤선희, 이형용, 노수정)
제116호 쌀, 김치, 삼계탕 대중국 수출 검역협상 타결과 과제(정민국, 전형진, 김태훈, 우병준, 문한필)
제115호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대응전략(정학균, 김창길)
제114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이상현, 김종인, 정대희, 안수정)
제113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따른 국제농업개발협력 사업의 성과 관리 (이대섭, 최민정, 하경진, 김동훈)
제112호 2014년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와 향후 과제(박준기, 한석호, 남경수, 정호연)
제111호 김치의 한·중 검역협상 동향과 수출 확대방안(최병옥, 노호영)
제110호 주요 농림축산물의 2015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우병준, 김태훈, 최병옥, 장철수, 최지현)
제109호 대한민국 성장의 대지, 농업 · 농촌 70년의 성과와 새로운 도전(송미령, 문한필, 김미복, 성주인, 임지은)
제108호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07호 최근 소 값 동향과 전망(이형우, 우병준)
제106호 한·EU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시사점(지성태, 이현근, 이수환)
제105호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과제(정은미)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헌)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